

『弟子規』의 교육적 가치

현 중국에서의 교육적 활용을 중심으로

佟麗生*

目 录

1. 서론
2. 『제자규』의 유래와 저자
3. 『제자규』의 교육적 가치
4. 결어

1. 서론

중국에는 『삼자경(三字經)』¹⁾, 『백가성(百家姓)』, 『천자문(千字文)』을 삼대 국학계몽서로 보고 있다. 『三字經』의 핵심사상은 인(仁)·의(義)·성(誠)·경(敬)·효(孝)이고 내용은 천문·지리·역사·도덕과 심지어는 설화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독하면 천하의 일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한다. 『千字文』은 천개의 문자를 조합해내 4개의 문자를 하나의 구(句)로 하고 두 개의 구가 서로 댓구(對句) 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처음엔 체계적이지 못했던 낱개의 문자들이 의미가 완벽한 문구를 이룬 동몽서이다. 『百家姓』은 중국성씨에 관한 책으로 북송초기에 완성되었는데 원래는 411개의 성씨를 수집했다가 그 후에 504개

* 世明大學校 中國語學科 教授

- 1) 『三字經』은 송나라이래에 칠백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집집마다 한 권씩 소장하고 있는 동몽서책이다. 1천자 넘는 문자를 세 글자를 하나의 문구로 구성했다. 중국어 뿐만 아니라 몽골어 만주어 그리고 영어 불어로까지 번역되었으며 1990년 싱가포르에서 번역한 영어판본은 유네스코에 등록되기도 했다.

까지 늘어났다. 그중 444개는 단성이고 60개는 복성이다. 『百家姓』역시 천자 문처럼 아이들에게 글자를 익히기 위해 만든 책이다. 『三字經』과 『百家姓』그리고 『千字文』을 ‘三百千’이라 부르고 중국 고대 유소년들의 계몽독서로 널리 사용됐다. 이외에도 많은 서적들이 있는데 근래에 와서 왜 『제자규(弟子規)』가 유독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09년5월13일 중국 중앙정치국 상임위원이자 중앙서기처에 서기로 있던 시진핑(習近平)은 중앙당교 봄 학기 개학식에서 『지도자간부들은 독서를 좋아해야하고 좋은 책을 즐겨야하고 독서를 잘 해야한다(領導幹部要愛讀書讀好書善讀書)』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간부들에게 동서고금에 우수한 전통문화 서적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9년9월18일 중국공산당 제 17차 중앙위원회와 제 4차 전체회의에서도 역시 우수한 전통 중화문화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창했다.²⁾ 근 천년동안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三百千’이 지향하는 우선적인 목적은 아이들에게 글자를 읽히기 위한 입문서라는 점이다. 그러나 청나라 때 이육수가 편성한 『弟子規』는 바로 당과 시진핑이 말한 요건을 모두 다 갖추면서 중국전통가훈을 모아놓아 ‘인생에 있어 첫 번째 규범(人生第一規)’라 칭할 수 있어 사람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할 근본 덕목들을 체계적으로 편성해 놓아 당원이나 간부라면 『弟子規』를 최우선적으로 숙독해야 할 책으로 정하게 됐다.

근년에 들어 중국 전역에서는 국학경전인 『弟子規』를 배우고자 하는 열풍이 크게 불고 있다. 『弟子規』는 『三字經』의 형식을 취해 세 글자를 하나의 문장(三字一句)으로 구성하는 형식으로 360문구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힘써야할 113가지 사항을 제시하면서 『논어(論語)』, 『예기(禮記)』, 『동몽수지(童蒙須知)』³⁾등에서 말한 도리를 간략 명료하면서도 평이한 언어로 유가사상을 집중 조명 했다. 유가의 윤리도덕은 어린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쉽게 그 도리를 배우며 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도록 인도 해준다. 현재 중국

2) 王維欣, 「『弟子規』是黨員幹部道德修養的首選讀本」, 經理日報, 2010.6.29.第c03版.

3) 『童蒙須知』:南宋학자 朱熹가 지은 책으로 일종의 계몽책이다. 『東聽雨堂刊書·儒先訓要十四種』에 수록되었다.

현지에서는 안휘성의 작은 마을에서⁴⁾ 부터 해남성의 감옥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각 기업⁶⁾ 이나 유치원 초 중등학교⁷⁾, 뿐만 아니라 각 성(省)에서는 물론 전통문화 공익논단과 중앙cctv에서조차도 ‘백가강단’⁸⁾을 통해 『弟子規』에 대한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로 문화대혁명시기에 파사구(破四舊)를 겪어왔던 사회에 유가사상을 위주로 하는 『弟子規』가 이렇듯 다시 제창되는 현상은 현 중국사회에 지나치게 배금주의(拜金主義)사상이 만연되면서 드러나는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과 윤리도덕의 상실이 이 책을 부활시키는데 그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중국전역에서 이 책에 대한 열풍이 이렇듯 식을 줄 모르는 그 원인이 『弟子規』의 교육적 가치에 있다고 보고 그 실상을 『弟子規』총서에서 말한 7가지 항목을 효제, 근신, 범애중이친인, 여력학문(孝悌, 謹信, 汎愛衆而親仁, 餘力學文) 네 가지로 분류해서 교육의 공간과 대상을 단계별로 넓혀가는 그 교육적 내용의 가치를 연구하고자 한다.

2. 『弟子規』의 유래와 저자

1) 『弟子規』의 유래

『弟子規』는 청나라 강희년에 산서(山西) 강주(絳州)사람인 이육수(李毓秀)의 저서로 원래의 책 이름은 『훈몽문(訓蒙文)』으로 『論語』 「學而」편 제 6조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면 효를, 밖으로 나오면 어른을 공경해야하며 행실

4) 石大建, 「『儒經』誦讀思潮在民間社會的興起及其動員機制」, 上海大學, 박사논문, 2010. 151쪽
 5) 姚峰, 『未成年犯罪原因調查及傳統道德教育實驗』, 安慶師範學院學報, 2011년12월 제30권 제12기 57쪽
 6) 劉碧珠, 「從匯通匯利公司的實踐看『弟子規』在企業管理中的應用」, 中山大學, 석사논문, 2010.,
 7) 張波, 「小學德育視域下『弟子規』的價值研究」, 信陽師範學院, 석사논문, 2013.
 8) <http://ygg713.blog.163.com/blog/static/5048327920139142143484>

을 삼가고 신의가 있어야 한다. 널리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어진이를 가까이 하니 행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써 글을 배워야 한다.(弟子入則孝,出則悌,謹而信,汎愛衆,而親仁,行有餘力則以學.)”을 근거로 지은 것이다.⁹⁾ 내용은 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본적인 예의범절,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와 처세, 학문 할 때에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근간으로 담고 있다. 이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충실한 가풍을 양성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순박한 미풍형성에도 도움이 되었다. 청나라에서는 이 책을 중시하여 어린이들이 필독해야 할 최상의 교재로 인정해 중화민국 성립 이전까지 영향력이 지대했던 『三字經』에 버금가는 동몽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다.民国초기 교육 개혁이전까지는 『弟子規』가 줄곧 계몽(蒙學)교육의 교재로 사용되다가 중화민국 성립 후에는 반포한 교과서가 모두 사용 금지 당했고 게다가 학교 교육의 새로운 교육 체제에 밀려 『弟子規』는 교육현장에서 아주 사라지게 되고 그 후로도 계속되는 시국의 변천 속에서 점차 사람들에게 잊혀져갔지만 건국 이후 1962년에 장지공(張志公)이 『전통어문교육초탐(傳統語文教育初探)』에서 이옥수(李毓秀)의 『弟子規』 “근이신(謹而信)”편을 거론하면서 전통몽학독서에 대한 연구가 다시 재개 되었다. 그 시기는 1960년대 후반 문화혁명시기에 『弟子規』가 ‘반동언론’, 비판을 받게 된 후이다. 예를 들면 1974년에 남충사범학원(南充師範學院)에 비림비공(批林批孔)사무실에서 비주(批注) 한 것을 보면 「공맹이 전파한 독극물을 숙청한다: 옛 현문 등을 넓히고 증가 시킬 수 있는 나쁜 책들 『천자문』, 『신동시』, 『제자규』, 『명현집』을 비판하다.(肅清孔孟流毒:千字文,神童詩,弟子規,名賢集,增廣昔時賢文等壞書批判)」이 있었고 1975년 공산당청년단 섬서성 당 간부 학습반에서 저술한 『제자규비주(弟子規批註)』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가 그 당시 비림비공운동의 산물들이다. 또한 이러한 비주들은 문화혁명시기 중국대륙의 언론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통문화교육 열풍으로 『弟子規』는 다시 대중들의

9) 張慧玲, 「『弟子規』對現代家庭教育的價值和意義」,山西師大學報第36卷第3期2009年5月128쪽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를 계기로 출판사에서는 앞 다투어 이 책을 출판하였다. 단행본 또는 기타 몽학전적과 합간(合刊) 하여 주음이나 한어병음으로 주해를 넣으면서 그림이나 이야기를 넣는 등 그 형식이 다양하다. 상해도서관에 소장되고 있는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한 『弟子規』만 해도 백 여 종이나 된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은 모두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를테면 저자의 생년월일, 본적, 수정자 등 부분이 모두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근년에 들어 학술계에서는 비로소 이 책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 와 함께 저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 중 산서성의 청년학자 왕준평(王俊閔) 선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산서성 각 지역에 있는 『신강현지(新絳縣誌)』 『직예강주지(直隸絳州誌)』 『산서역사인물전(山西歷史人物傳)』 『수선백영(水仙百咏)』 『산서헌정(山西獻征)』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그 실마리를 조금씩이나마 풀게 되면서¹⁰⁾ 저자의 신분이나 출생 그리고 『弟子規』 판본의 고증과 내용면에서의 연원과 유가와 관계 등의 문제가 비로소 다소나마 원론적으로 풀리게 되었다.

2) 『弟子規』의 저자

이육수(李毓秀)의 字는 자잠(子潛)이고 호는 채삼(采三)이며 청나라 산서성 신강현 용흥진주장촌(山西省新絳縣龍興鎮周莊村) 사람으로 순치(順治)4년 1647년에 태어나서雍正(雍正)7년 1729년에 8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청나라초기에 저명한 학자이자 교육자였던 이육수의 인생은 비교적 평이하였으며 성정은 온화하고 활달하였다. 역사자료에 따르면 그는 젊었을 때 같은 고향 학자인 당빙학(黨冰壑)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근 20년을 학문에 전념했다. 『대학』 『중용』에 정통하였고 만년에는 돈복재(敦復齋)를 창건하여 강학(講學)을 하였으며 대중들의 호평을 받았다. 태평현어사 왕환(太平縣御使王夙)은 그의 재능을 극찬하였으며 사람들은 이육수를 이부자(李夫子)라고 칭송하기도 했

10) 衛世新, 「揭開‘弟子規’作者生平之謎」, 山西日報, 2010년6월4일 第C01版. 참조.

다. 청대에는 호연(胡淵)의 『몽양시교(蒙養詩教)』와 이육수의 『弟子規』가 대표적인 윤리규범교재였다. 『蒙養詩教』는 칠언을 한 문구로(七言一句), 여덟문구를 한 수(八句一首)의 형식으로 지어졌으며 그 내용은 어린이들의 의식주행, 어른 공경, 미화환경, 독서 습자 등 일상생활의 규범을 익히도록 하는 책이고, 이육수의 『훈몽문(訓蒙文)』은 유학경전과 주자(朱子), 또한 그의 제자까지의 동몽서적을 기반으로 편찬한 책이다.¹¹⁾ 그 후 가존인(賈存仁)이 수정을 하면서 책 이름을 『弟子規』로 바꾸게 되었다. 이육수의 저서로는 『訓蒙文』 외에도 『사서정위(四書正偽)』, 『사서자류석의(四書字類釋義)』, 『학용발명(學庸發明)』, 『독대학우기(讀大學偶記)』, 『송유부문약(宋孺夫文約)』, 『수선백영(水仙百詠)』 등 있다. 현재 산서(山西)도서관과 북경대학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는데¹²⁾ 상술한 저서 중에서 『弟子規』가 대중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육수가 사망한 후에 그의 위패는 강주 선현사(絳州先賢寺)에 모셔질 정도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가존인(賈存仁)은 『訓蒙文』을 수정 개편하여 『弟子規』로 개명 했고 산서성 인민 정부문사 연구관 관원(山西省人民政府文史研究官)인 적약문(翟耀文) 제자규밀마(弟子規密碼)의 저자인 왕준굉(王俊閔) 등은 부산현(浮山縣)으로 가서 『弟子規』수정자 가존인선생의 고향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들은 가존인을 『弟子規』 저자중의 한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지(史志)¹³⁾에 따르면 “『弟子規』의 原名인 『訓蒙文』의 저자는 新絳人 李毓秀이고 그 후 浮山人 賈存仁선생의 수정을 거쳐 개편하여 『弟子規』로 이름을 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많은 자료에 따르면 『訓蒙文』은 『弟子規』로 이름을 바꾼 후 에야 비로소 일세를 풍미하게 되어 오늘날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존인 선생은 국학경전 『弟子規』에 매우 크게 공헌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가존인선생의 생애와 경력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부산(浮山)고찰조사연구기관의 조사팀이 가존인선생의

11) 黃燦, 「弟子規研究」, 上海師範大學校, 석사논문, 2011년4월. 14쪽

12) 徐梓: 『蒙學讀物的歷史透視』 [M],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1996年, 110쪽

13) 『新絳縣誌』, 『直隸絳州誌』, 『山西歷史人物傳』

고향에서 발견 하게 된 것은 가존인선생의 묘지명(墓志銘)과 족보 그리고 많은 유물들이다. 이옥수의 생애를 연구 조사했던 王俊閣선생은 가존인선생은 『訓蒙文』을 형식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두 새롭게 수정 하고 개정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弟子規』를 빠르게 전파하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했으므로¹⁴⁾ 오늘날 가존인선생을 『弟子規』의 또 하나의 저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3. 『弟子規』의 교육적 가치

『弟子規』는 『論語』學而편에서 언급한 孝悌, 謹, 信, 汎愛衆, 親仁, 餘力學文의 내용을 계승한 행동규범을 강조하는 동몽교재의 집대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용이 평이하고 간명하여 그 뜻을 알기 쉬울 뿐만 아니라 압운이 되어 있어 정독하기에도 좋고 그 가르침 또한 하나같이 주옥같은 금언으로 실로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주는 책이다. 제자규는 청대 후기에 널리 전파되어 청나라 교육 사상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들의 동몽교재로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세 글자를 한 구로 간결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학습의 중요성은 물론 사람의 도리와 대인관계에서의 예절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중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널리 사랑을 받아온 『百家姓』과 『三字經』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千字文』과 『四字小學』에 버금가는 책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쳐왔다.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성립되면서 서구교육이 들어오기 시작 하자 전통몽학교육은 그 서구화에 밀려나게 되었다. 이같이 수십 년 동안 수난을 겪어오던 전통몽학들은 21세기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몽학 열풍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각 급 학교와 기업체 심지어는 감옥에서 까지도 『弟子規』를 교재로 삼아 재소자들을 계도할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원

14) 衛世新, 「揭開‘弟子規’作者生平之謎」, 山西日報, 2010년6월4일 第C01版. 참조.

간부들의 도덕 함양 필독서가 되기도 했다.¹⁵⁾ 『弟子規』가 이같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은 전통문화가 현대교육에서도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동몽도서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행을 길러주는 책이다. 앞의 총서에서는 “제자규는 성인(聖人)들의 가르침이다. 맨 먼저 효행과 형제들 사이에 우애를 실천하고 그 다음으로 삼가 행동을 정중하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신의를 지켜야 하고, 무릇 모든 이를 사랑하고 여진사람을 가까이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여력이 있다면 학문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弟子規, 聖人訓, 首孝悌, 次謹信, 汎愛衆, 而親仁, 有餘力, 則學文)”로 그 단계가 분명하게 정해져있는데 이는 교육내용에 따라서 그 교육 공간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 사회로 그리고 대자연의 우주 만물로 넓혀가는 교육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 교재이긴 하나 그 내용은 천지만물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지혜롭고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내용으로써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일반인들도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담겨있다. 본 장에서는 그 내용과 교육공간을 위주로 아래와 같이 4단락으로 구분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1) 효와 悌를 으뜸으로 하는 가정교육

북경풍대구 인민법원의 판결서에서 『弟子規』孝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효행은 무엇이 어렵겠는가? 부모님이 나를 미워할 때 하는 효행이야말로 어진이라 하겠다(親愛我, 孝何難, 親憎我, 孝方賢)”을 내세워 자녀들에게 가정화목을 원칙으로 삼아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를 권하면서 가정문제를 심리(審理)하였다.¹⁶⁾ 옛말에도 “모든 선행은 효를 우선으로 한다(百善孝爲先)”

15) 王維欣, 「『弟子規』是黨員幹部道德修養的首選讀本」, 經濟日報, 企業論壇, 2010年6月29日, 第C03版

16) 李辰·安平 『北京豐臺法院審理家庭糾紛既講法理也講親情, “弟子規”倫理警句寫入判決書』, 人民法院報, 2010年6月29日, 第003版.

모든 선은 효행에서 비롯되고 효가 근본이 되어야한다고 했다. 효행 편에 첫 문구를 보면 “부모님이 부르면 즉시 대답하고 부모님이 명하시면 행동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되며 또 가르침을 주실 때에는 진지하게 경청해야하며 부모님이 책망하실 때에는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父母呼,應勿緩,父母命,行勿懶,父母教,需敬聽,父母責,需順承)”했고, 부모님께서 병환이 있으시면 약을 맛보고 올려야하고 주야로 모시면서 침상 옆을 떠나지 않는다(親有疾,藥先嘗,晝夜侍,不離床). 이와 같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늘 품고 실천하는 생활을 하니 사회에 나가서도 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인위적이 아닌 자연스럽게 우리날 수 있어 자아의 선(善)을 완성시킬 수 있다.

총서부분에서는 사람은 “가장 먼저 효와 제를 잘 지켜야 한다(首孝悌,次謹信)”고 말하면서 의심할 여지없이 효를 중국전통 미덕 중에 으뜸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悌’와 ‘孝’는 어떤 관계이기에 이렇게 중시해야 하는가? ‘출즉제(出則悌)’ 단락에서 ‘出’은 작게는 집을 나서는 것이고 크게 본다면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가 바로 ‘出’이다. ‘悌道’¹⁷⁾는 중국전통사회에서 가족 간에 서로 소통하며 형제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내에서 천년동안이나 입에 오르내리는 ‘공융양이(孔融讓梨)’와 ‘조효쟁사(趙孝爭死)’ 등 이야기들은 바로 형제간의 우애와 가족의 화목을 나타내는 미풍양속으로 효와 함께 전통적인 미덕의 으뜸으로 자리 잡게 됐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소가족제도에서는 형제들이 없거나 한명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려온 미풍양속과 규범이 이로 인해 사라진다고 봐야 하는가? ‘형제간에 화목함을 이루게 되니 그것이 바로 효인 것(兄弟睦, 孝在中)’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종종孝와

17) 청나라 『弟子規』 10종류 판본을 가지고 총서부분의 문자를 비교한 결과 다른 문자는 다 똑 같았고 悌/弟자 하나만 달랐다. 復性齋本, 清麓本, 李光明本, 津河本, 武昌本, 聽雨堂本, 靜虛堂本, 增刻本, 昌文本, 9개 판본에서는 弟로 사용했고 周氏本만 悌로 사용했다. 『辭源』 해석을 보면: ‘悌’는 敬愛兄長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弟’와 통용된다. 고로 양자 통용할 수 있다. 오늘날 관용되는 면으로 보면 ‘悌’가 조금 더 적절하지만 그러나 9개 판본에서 ‘弟’를 사용한 점을 보아 ‘弟’가 상위에 있다. 黃燦, 『제자규연구』, 상해사범대학 석사논문 2011년, 19쪽 참조. 본 논문에서도 ‘悌’를 선택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梯를 나란히 놓고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를 인간의 근본이라 여겼다. 梯道 편에서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연장자를 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해주고 있다. 혹은 식사를 하거나 혹은 앉거나 주행하거나 할 때 연장자 먼저 앞서고 어린사람은 뒤에서 따라야 한다(或飲食,或坐走,長者先,幼者後), 또한 어른들이 어떤 이를 부르면 즉시 대신 그 사람을 불러오고 만약에 없으면 자신이 앞에 가서 사정을 설명해야한다(長呼人,卽代吽,人不在,己卽到). 이육수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환경, 즉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가정생활에서 들고 나고 할 때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을 통해 어린이나 젊은이들이 연장자와 함께 있을 때 지켜 나가야할 생활규범을 孝梯편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다.

2) 謹과 信을 버금으로 하는 사회교육

‘謹’ 편에서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는 적당할 때 잠을 잔다. 세월은 인생을 기다려주지 않고 늙음은 쉽게 오니 현재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朝起早,夜眠至;老易至,惜此時)”를 첫째로 꼽는다. 많은 위인들이 성공한 가장 큰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시간을 잘 이용할 줄 아느냐와 또 없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朝起早’의 가장 모범적인 예는 계선림(季羨林)¹⁸⁾선생이다.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면(惜此時)’ 우리의 생명도 연장된다고 봐야겠다. 또한 謹편에서는 ‘모자는 똑바로 쓰고 단추는 반드시 잠그고 양말과 신발도 모두 끈을 단정히 묶도록 한다(冠必正,紐必

18) 季羨林 (1911年8月6日-2009年7月11日), 자는 희포(希逋), 또는 제장(齊獎)이다. 중국 저명문학자, 언어학자, 교육자, 사회활동가, 번역가, 산문가이며 12개 국어에 능통하다. 일찍이 중국과학원철학사회과학부위원, 북경대학부교장, 중국사과원남아연구소소장 등을 전임했다. 100여개 학회의 회장을 겸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논문을 끊임없이 발표했다. 사람들이 그 바쁜 와중에 언제 글을 쓰십니까? 하고 묻자 계 선생은 “당신들이 아침식사를 할 때에 전 이미 3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셨다. 20여권으로 묶어진 『계선림문집(季羨林文集)』과 그분의 수많은 논문들은 모두 이 3시간에 썼다고 한다. 2009年7月11日 북경에서 9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結,襪與履,俱緊切)고 했다. ‘冠必正, 紐必結’은 중국인들이 의관을 단정히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의관이 흐트러져도 안 될 뿐더러 역사를 살펴보면 심지어 이것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 공자의 제자들 중에 가장 신임을 받은 제자는 사냥꾼 출신인 자로(子路)이다. 자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가장 직설적으로 말하는 제자이기도 하다. 그는 머리에 계관모를 쓰고 검을 차고 매우 충직하면서도 용맹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만약 내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게 된다면 아마도 자로(子路)만이 내 곁을 지켜줄 것이다.”고 할 정도 자로를 신임했다. 자로 역시 매우 충성스러운 제자였다. 그러나 때로는 용감하게 스승을 비판하기도 한다. ‘자견남자(子見南子)’¹⁹⁾이야기가 바로 자로가 공자에게 “스승님께서 어찌하여 저런 여자를 만나고자 하십니까?” 하며 비판한 유명한 일화이다. 이렇게 재능이 뛰어나고 우수한 제자 자로는 모자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위(衛)나라에 내란이 생겨 자로는 난신들을 응징코자 갔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자로와 싸우다가 자로의 모자를 빼앗아 버리게 했다. 지금 당장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상황인데 그때 자로는 “군자는 죽어도 모자는 벗을 수 없다(君子死而冠不免)²⁰⁾”고 하면서 모자를 똑바로 묶고 있을 때 난신에게 죽음을 당하게 됐다. 이와 같이 자로의 죽음은 모자로 인해서이다. 또 진문공(晉文公)은 중국 고대에 매우 유명한 군왕이다. 한번은 전장에서 자신의 신발 끈이 풀어진 것을 보고 손에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끈을 묶었다. 다행히 군왕의 호위무사들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자로와 같은 결과를 당했을 것이다.²¹⁾ 그러므로 ‘冠必正’과 같이 의복을 단정하게 입는 일은 옛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의관이 청결한지 또는 단정한지를 통해 그 사람의 품행과 수양을 평가한다. 아마도 이런 점들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면접을 보러갈 때를 생각해보면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외에도 ‘謹’편에서는

19) 『論語·雍也』:“子見南子, 子路不說. 孔子矢之曰: “予所否者, 天厭之! 天厭之!”

20) 『史記·仲尼子弟列傳』: “子路曰: ‘君子死而冠不免’”

21) 錢文忠, 『弟子規解讀』, 大塊文化出版公司, 2011年7月, 111쪽

옷과 모자를 벗어 제자리에 잘 챙겨야 하고(置冠服,有定位) 의복은 항상 깔끔 하되 화려할 필요는 없다(衣貴潔,不貴華)는 점과 또 음식을 먹을 때는 편식하지 말고(對飲食,勿揀擇) 술은 마시지 말아야 하며(年方少,勿飲酒) 술을 마시게 되면 가장 추하며(飲酒醉,最爲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등을 가르친다. 걸음걸이는 침착하고 서있을 때는 반듯해야 하며(步從容,立端正) 일을 할 때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勿畏難) 남의 것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하는(借人物,及時還) 등의 의식과 언행에 관한 일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옛 말씀에 “信은 입신의 근본이므로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며 서(恕)는 접물 지요(接物之要)이니 죽을 때까지 실천해야 한다.”라고 했다. ‘信’은 중국고대 사회에서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신의에 대한 상실은 실로 안타깝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일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문제이다. 통계에 의하면 제 때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50%를 넘고 심지어 어떤 성(省)에서는 60%를 초과한다고 한다. 많은 학생들은 상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졸업 후에 개명하다 못해 심지어는 성씨까지 바꿔버린다.²²⁾ 젊은이들이 신의를 가벼이 생각하는 행동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그들 대부분이 정작 당사자들은 신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 진정한 성실과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은 교육계에 큰 경종이 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신의 문제를 연구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은 현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이를 보면 의를 잊는(見利忘義), 즉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여 의를 잊어버리는 풍조와 또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결여된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겠다.

2010년 3월 26일 남경 phoenix contact 전기주식회사 총재 이모송(李慕松)은 하남성 정주(鄭州)에서 개최한 제1회 전통문화 논단 개막식에서 1200여 명의 청중들과 함께 『弟子規』를 낭송하고 “중화문화 촉진 기업 화해발전”을

22) 王芳, 「論‘弟子規’的德育思想對當代大學生的教育意義」, 高等教育研究, 『魅力中國』2010年 17期, 169쪽

주제로 연설 했다. 같은 해 5월19일에는 남경 삼강학원 교직원과 중덕 직업 교육 학원의 요청을 받아 이모송 총리는 “덕성교육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젊은 청중들에게 오프닝 멘트로 『弟子規』 信 편에 “의복이나 음식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남들만 못하다고 근심을 일으키지 마라(若衣服,若飲食,不如人,勿生憾)”, “비록 덕이나 학식, 재능이나 기예가 남들만 못하더라도 마땅히 스스로 갈고 닦아야 한다(唯德學,唯才藝,不如人,當自礪)”고 설명하면서 과거 자신의 어려웠던 성장과정을 일일이 소개하며 출신이 빈곤한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므로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지난 15년 동안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함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채용하는지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면서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로 자라줄 것을 당부했다.²³⁾

‘信’은 사람 ‘人’자와 말씀 ‘言’자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언어의 성실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말은 마음에서 우러남으로 진실한 언어일 때 비로소 그 언어에 담겨 있는 의미가 의사 전달로 작용 하게 되는 법이다. “무릇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신의를 우선으로 지켜야 하고 헛된 말로 속이거나 해선 안된다(凡出言,信爲先;詐與妄,奚可焉)”. 현대사회에서 신용은 아주 중요하다. 흔히 사회생활 회사업무 등에서 성공의 관건이 된다. 주(周)나라의 유명한 “계찰괘검(季札掛劍)”이야기는 자신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죽은 서(徐)나라 군왕의 무덤으로 가서 검을 바친다. 이렇게 옛사람들은 신용을 목숨처럼 아끼고 지켰다. 설사 자신이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한 약속 일지라도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

공자님 말씀에 “사람은 신의가 없다면 어찌 해야 옳은지를 모른다. 큰 수레에 췌기가 없고 작은 수레에 끌채가 없다면 어찌 멩에를 얹어 수레를 움직일 수 있겠는가(人而無信,不知其可也.大車無輓,小車無軌,其何以行之哉?)”²⁴⁾라고

23) 浩富, 「經常學習‘弟子規’和諧發展長智慧-非尼克斯電氣中國公司弘揚中華傳統文化小記」, 『chinese time』 2010.08, 화인시점views11.

24) 『論語-爲政』편, 2-22

했다. “ 다시 말해 수레에 썰기나 끝채처럼 짐승들과 연결 고리를 만들어줄 것이 없다면 소나 말이 제아무리 달린다 해도 수레는 움직일 수 없다. 이것은 수레와 짐승과의 두 물체를 연결시켜주는 신의(信義)가 있으므로 해서 일을 실천할 수 있다는 ‘信’에 대한 비유이다. 이처럼 믿이란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에서도 지켜져야 할 이치이다.

요즘 같은 물질중심시대에 신의를 잘 저버리는 젊은이들에게 『弟子規』의 성신(誠信)에 관한 읽힘은 실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말로서 신의를 지키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허락이나 약속을 쉽게 하지 않고(凡出言, 信爲先; 事非宜, 勿輕諾)” 신의를 바탕으로 도덕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대학생이나 일반 성인들이나 자아의 가치실현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인격수양서부터 진행해야한다. 높은 인격을 갖출 수 있을 때 가정에서 사회에서 비로소 나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인자를 가까이 하는 愛衆교육

『弟子規』는 인애교육(仁愛教育)이다. 총서에 나오는 ‘효, 계, 근, 신, 애, 인, 문(孝, 悌, 謹, 信, 愛, 仁, 文)’은 일곱 가지이면서 하나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다. 효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悌는 형제를 謹은 품격을 信과 仁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고 文은 사랑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한 가르침이다.²⁵⁾ 범애중(汎愛衆)편은 “무릇 사람이려면 모두 인애심이 있어야 하고 하늘은 모두를 덮어주고 땅은 모두를 머리에 얹어 준다(凡是人, 皆須愛; 天同覆, 地同載)”고 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늘이 덮어주니 머리는 하늘을 받들고 두 발은 아래로 대지를 밟고 있는 형상이다. 하늘과 땅은 모든 이를 똑 같이 대해준다. 악인이라고 덮어주지 않거나 선인이라고 더 잘 덮어준다거나 하는 일이 없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지혜롭거나 우매하거나 현량하거나 불효하거나 전혀 가리지 않고 하늘과 땅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한다.

25) 郭文斌, 『弟子規到底說什麼-打開弟子規的六把鎖』, 中華書局2011.07 81쪽

성인들이 어찌 성인이겠는가? 바로 이렇게 天·地·心을 따라서 하늘의 仁愛, 땅의 후덕(厚德)함으로 모든 善과 不善을 다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 만물은 일체(一體)이며 이것은 하나의 道이다. 老子는 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道는 만물을 생장시키며 천지의 시작은 만물의 근원이라²⁶⁾하여 道를 사랑으로 표현 한 것이다. 우주만물은 일체이니 우주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주 안에 있는 사람이건 생물이건 생명이 있건 없건 즉 동물·식물·산하·대지·토석·광물·자연환경 등 모든 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²⁷⁾ 사랑의 근본은 오륜의 부자유친²⁸⁾이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천륜이기 때문이다. 천륜이란 본래의 것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애중정신으로 확대하고 습관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나 자신 부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남경장년개발구 phoenix contact 전기주식회사 사내에 “凡是人,皆須愛:天同覆,地同載”, “建國君民, 教學爲先”과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 등의 서예작품들이 벽에 걸려있고 또 회사 로비의 대형모니터에는 항상 『弟子規』의 경구가 상영되고 있다. 모든 직원들은 입사 첫 날 『弟子規』를 한 권씩 받아 좋은 마음과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일 그리고 좋은 사람 교육을 받게 된다. 현재 남경 phoenix contact 전기주식회사는 독일 phoenix contact 전기그룹 중에서 가장 큰 해외생산기지로 세계 삼대 경쟁력 중심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본부가 되었다. 게다가 강소성의 중요 외상 투자기업으로 중국과 독일 경제기술합자회사의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회사로 자리 잡았다. 2009년 5월에 회사 총재 이모송(李慕松) 교수는 전국 5·1노동 상을 받기도 했다.²⁹⁾ phoenix contact 전기주식회사의 발전과 그 성과는 몇 가지로 나눠서

26) 老子, 『道德經』第二十五章, “人法地,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

27) 鍾茂森, 『鍾博士講解弟子規』, 中國華僑出版社, 2012.04 137쪽

28) 『孟子·滕文公上』

살펴볼 수 있다. 우선은 凡是人,皆須愛;天同覆,地同載의 사상을 기반으로 평등과 사랑을 대인관계의 원칙으로 삼았고, 둘째는 덕행이 숭고한 자는 그 명예도 자연히 높아진다.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는 것은 그 외모가 출중해서가 아니다(行高者,名自高,人所重,非貌高). 고위관직들은 세력으로 사원들을 승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서 존경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셋째는 협동정신을 갖도록 공정성을 보여준다. 직원들끼리 남의 재능을 보고 질투하고 헐뜯으면 안된다(人所能,勿輕訾), 남의 잘못을 들춰 내지 말 것(人有短,切莫揭), 남의 선한 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다(道人善 卽時善).³⁰⁾ phoenix contact 전기 주식회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부하면서 인성함양에 힘을 쓰고 서로서로 존중하며 협동정신을 키워가며 더불어 회사의 발전도 함께 한다.

범애중편은 천지만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고 있다.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 조국에 감사하고 대자연에 감사하고 천지만물에 감사하며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화 시키도록 노력하니 서로 성격이 달라 같듯이 생기는 사람, 계층이 다른 사람 문화배경이 다른 사람 등 과도 화합을 이룰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면서 동시에 선과 악을 명백히 구분하고 소인을 멀리하며 仁者를 가까이 하라고 요구한다.

“똑같이 사람인데 유형이 같지 않다. 통속으로 빠진이는 많고 인자는 드물다(同是人,類不齊:流俗衆,仁者希)”고 했듯이 다함께 똑같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인데도 품행이나 성격 빈부귀천이 각기 다르다. 불교에서 부처님이 팔만 사천법문을 하신 것도 중생들의 근기(根氣)가 각기 다르고 의요(意樂)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선교에 한 방편으로 상황에 따라 가르침을 주고자 한 것이고 유교에서도 성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역시 ‘유교무류(有教無類)’의 원칙을 따르며 각기 다른 성격의 제자들에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고 있다.³¹⁾ 예를 들어 한번은 자로(子路)가 “만약에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면 즉시

29) 浩富, 「經常學習‘弟子規’和諧發展長智慧-非尼克斯電氣中國公司弘揚中華傳統文化小記」, 『chinese time』 2010.08, 화인시점views11.

30) 艾興, 「弟子規」對當代大學生道德教育應用研究, 陝西科技大學, 석사논문, 2012년6월, 24쪽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하고 묻자 공자께서: “너의 아버님도 형님도 계시니 그분들의 경력과 경험이 너 보다 풍부하니 서두르지 말고 먼저 여쭙어 본 뒤에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염유(冉有)도 같은 질문을 했더니 공자님의 대답은: “당연히 즉시 실천을 해야지”라고 하셨다. 옆에 있던 공서화(公西華)가 의이해하면서 “자로와 염유의 질문은 똑 같은데 왜 스승님의 답은 다르니까?” 하자 공자께서 “자로는 성정이 급하고 일을 할 때 관찰을 잘 하지 않으며 경솔하고 충동적인지라 세 번 생각한 후에 행하라고(三思而後行) 당부한 것이고 염유는 평상시에 어떤 일에서나 의기소침하고 패기가 부족하니 그에게는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여 그를 격려하면서 우유부단하지 말고 즉시실행 하라고 말해준 것이다.”³²⁾ 성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가르침도 각기 다르다. 설사 이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선행을 하더라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을 잘 분석하고 관찰해서 인도(引導)한다. ‘流俗衆, 仁者希’ 즉 세상은 인자보다는 일반적으로 세속을 따라가는 범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인자를 가까이 할 수 있으면 한없이 좋은 일이다. 덕은 날로 향상될 것이고 과실은 날로 줄어든 것이다(能親仁, 無限好; 德日進, 過日少)”고 했다. 仁者를 가까이 하다보면 그들을 거울삼아 자신을 비춰보게 되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됨으로서 품행과 수양은 날로 개선되고 향상될 것이다. 반면에 인자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어떠한가? “인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해를 입을 것이다. 소인의 언행은 날로 늘어나고 백가지일을 다 망치게 될 것이다(不親仁, 無限害; 小人進, 百事壞)”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람들과 자주 친교를 가져야 한다. 만약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인자가 아니고 소인이라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 각종 불량 언행으로 오염되어 백가지 일을 다 망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百事’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다. 즉 “주사에 가까이 있는 자는 붉게 물이 들고, 먹과 가까이 있는 자는 검게 물이 든다(近朱者赤, 近墨者黑)”³³⁾의 이치와

31) 索達吉堪布仁波切, 『弟子規另解』, 廣東省出版集團花城出版社, 2010年5月, 220쪽

32) 『論語·先進』

33) 『孟子·滕文公章句下』

같다. 여기서 심각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다. 덕행이 있는 어진 자를 가까이 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를 멀리함으로써 성현에 가까워 질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 장차 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이다. ‘親仁’은 반드시 인의와 도덕을 갖대로 삼아 선악을 명백히 구별하고 仁者를 가까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4) 餘力學文

앞에서 말했듯이 “孝·悌·謹·信·愛·親,仁”을 순차적으로 배운 다음 여력으로 학문을 익히라고 ‘餘力學文’을 말하고 있다. 또한 “不力行, 但學文, 長浮華, 成何人.” 즉 몸소 실천은 하지 않고 학문에만 힘쓰게 되면 실속 없이 겉치레만 중요시 하는 사람이 돼버린다고 말해주고 있다. 공자는 인생은 도덕과 수양 그리고 품격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하고 책 속의 지식은 그 다음의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이는 또한 중국의 전통적 가르침에 큰 지침이 되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 자신의 품행을 수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학업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다. 공자와 유가에서는 책속의 지식도 중요시 했는데 이는 책이 인류의 지식을 전승(傳承)해 나가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이다.³⁴⁾ 실천은 德을, 학문은 才를 말한다. 德과 才로 형성된 각각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사마광은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덕과 재를 겸비한 자는 ‘성인’이라 하고 덕도 재도 없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했으며 덕이 재주보다 큰 자는 ‘군자’라 하고 재주가 덕보다 큰 자는 ‘소인’이라 한다.”³⁵⁾ 이런 분류로 본다면 요즘 일부 대학생들은 학문은 높으나 덕행이 없으니 ‘대학생’이라고 부를 수도 없겠다. “행동만 열심히 하고 글을 배우지 않는다면 자신의 견해만 고집하게 되어 진정한 도

34) 錢文忠, 『弟子規解讀』, 大塊文化出版公司, 2011年7月. 276쪽

35) 索達吉堪布仁波切, 『弟子規另解』, 廣東省出版集團花城出版社, 2010年5月, 231쪽

리에 어둡다(但力行,不學文,任己見,昧理眞)” 이론만 알고 실제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표리부동으로 진정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반면에 만약 실천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그 내용의 깊은 뜻과 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칫 자신만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므로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도리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던지 이론과 실천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론적으로는 전혀 모르면서 맹목적인 실천만 한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일이다.

2012년5월26일 안휘성 송문중학교에서는 1700명이 단체로 ‘제자규’를 낭송하는 “천인이 함께 제자규를 독송하다(千人齊誦弟子規)”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안휘성 계수시(界首市)에 있는 송문중학교는 중화민족의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옛 성현들의 생각과 언행을 배우도록 인도하는 학교이다. 문화의 보고(寶庫)를 인식하고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효행과 감사하는 마음 등을 배워가면서 덕행과 수양을 통해 바르게 인생관을 세우도록 인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 해남감옥에서도 전통사상이 담긴 교재를 사용해 교육함으로써 복역자들을 대상으로 큰 성과를 보고 있다: 해남감옥에 원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2006년 4.5월부터 나는 중국문화를 감옥으로 들여와서 복역자들은 물론 경찰까지 포함해 윤리도덕교육을 실시해 왔다. …… 『弟子規』를 입문교재로 해서 기초 공부를 한 다음 감옥 특성에 따라 『요법사훈』과 『태상감응편』 등 두 권의 교재를 더 선택했다. 그중에서도 『제자규』를 위주로 한 오류팔덕을 교육하여 복역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게 하고 『요법사훈』을 통해 개과천선을, 그리고 『태상감응편』을 통해서는 인과응보와 악한 일을 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복역자들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도록 인도했다……내가 국장으로 있을 때 한번은 대단한 결정을 해봤다. 청명절에 일부 복역자들을 귀가시켜 조상님 묘에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토록 했다. 이 결정은 대단한 모험이었다. 그 때 한 명이라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국장자리를 내놓아야 할 판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학습을 통해서 백 명이 넘는 복역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무사히 감옥으로 돌아왔다… 36)

그 외에도 중국에서는 인성 함양을 위해 수많은 도시와 학교나 기업들이 『제자규』를 선택 했다. 보계일보(寶鷄日報) 2010년 7월 23일자에 도시전체가 전통문화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기사³⁷⁾를 비롯해 태항일보(太行日



그림1. 2014년청화대학개최“제자규와 현대기업경영”

보) 2010년 5월30일자에 게재된 탄광촌에서도 “제자규”에 대한 강연과 함께 광부들에게 교육을 실시한다는 기사³⁸⁾와 산둥성치박일보(濰博日報) 2010년 6월28일제001판에 장점구(張店區)학교의 『弟子規』교육실태를 보도한 기사³⁹⁾, 그리고 2010년 6월29일 경제일보에서 정부기관에서도 “『弟子規』를 당원과 간부의 도덕 수양의 독본으로 삼았다.”는 기사 등 각계각층에서 『弟子規』교육에 치중해왔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다. 근년에 와서는 대학에서도 『弟子規』의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청화대학교 고급연수반 국학대강단에서는 “제자규와 현대기업 관리”를 주제로 2014년 5월20일 대규모 강연을 실시했다(그림1).

『弟子規』는 젊은이들의 윤리교육과 일상생활에서의 행동규범을 중시하고 대인관계의 예절규범과 심리상태를 중시하는 등 주옥같은 덕육사상이 함축되어있는 동몽서로서 이제는 어린이 덕성교육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더 나아가 성인들에게도 결여된 도덕관을 정립하는 인격함양서로서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

36) “海南監獄管理局原局長：受賄就是貪官在寫自己的判決書” 祁勝勇. 燕趙都市網 2011.08.20.

37) “全城追捧‘弟子規’-中華傳統文化寶鷄首屆公益大講堂綜述”, 寶鷄日報, 2010.7.23

38) 山西青年報-“中華優秀文化講師團走進高平前和煤業-爲企業員工講授‘弟子規’”, 太行日報, 2010.5.30

39) “弟子規, 傾聽心靈的聲音”-張店區全面深入實施素質教育系列報道之一. 濰博日報. 2010.6.28

4. 결어

중국문화는 유구한 역사 속에 유(儒), 불(佛), 도(道) 사상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학(儒學)은 중국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유학의 중심은 전인교육이다. 지나온 백여 년 동안의 사회변혁 속에서 중국은 공가점(孔家店)을 타도하고 유학을 폄훼하며 심지어 유학이라는 말 자체가 보수적이고 진취성이 없는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근년에 와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에 따라 배금주의와 향락주의 사상 등이 만연되어 중국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 그리고 도덕관까지도 많이 왜곡 되어 크게는 탐관오리의 부패와 생활의 타락상에서부터 작게는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거지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뜻있는 인사들은 다시 중국전통문화를 되살려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래에 시작된 국학열풍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각 지역 교육부에서는 2004년부터 모든 유아원들이 『삼자경』과 『천자문』 『제자규』를 독송하고 암기하는 수업을 하도록 권장해왔고 또 2007년도에는 전 초등생들이 경전을 독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천해오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는 유치원, 초중등,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중화경전 독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9년도에는 낙양시 교육국이 도시 전체의 초등학교에서 매일 10분 동안 경전을 독송하도록 하고 집에서도 또한 15분 동안 독송토록 했다. 그런데 반드시 독송해야 하는 경전은 『弟子規』 『三字經』 『千字文』 『唐詩』 『增廣賢文』 『治家格言』 『大學』 『論語』 『孟子』 등이다. 이런 현상은 바로 전통문화를 인지한 대중들의 전통경전 학습에 대한 갈망과 유학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다.

『弟子規』는 유학의 기초로 공자의 교육사상 중에서도 孝, 悌, 謹, 信, 愛衆, 親仁 등을 취하여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갖도록 가르침을 주고 그 내용면에서도 『論語』와 朱熹의 『小學』, 『童蒙須知』 등으로 쉽게 암기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규범을 간략하고 쉬운 문장으로 지어 그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弟子規』는 단계적 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교육을 완성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므로 제자규의 교육적 가치는 바른 인성을 키워주는 체계적인 교육에 있다고 본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학교, 사회로 범위를 넓혀 중국에는 모든 것이 다 포괄되는 교육을 취하고 있다. 또한 공간적인 면에서 볼 때 사람이 태어나면서 맨 처음 접촉하는 환경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부모에 대한 효행과 형우제공(兄友弟恭)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이다, 그러므로 『弟子規』는 첫 단계 교육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할 효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학교교육을 거쳐 사회에 나가게 되면 더 이상의 도덕이나 인성교육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 환경에 따라 지켜야할 여러 규범들이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로 교육내용을 謹과 信을 내세워 그 교육공간을 사회라는 큰 틀로 넓혀갔다. 물질 만능 시대인 현대 사회에서 예의와 신의를 지킬 수 있다면 따뜻한 가정과 보dana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므로 謹, 信은 학교에서만 배워야 할 덕목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동안 배우고 실천해야할 평생교육이다. 다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배워야할 또 하나의 덕목은 愛衆親仁이다. 항상 어진 자를 가까이 하며 사람은 물론 우주만물까지도 사랑하며 감사 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고 몸소 실천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져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교육내용이 바로 『제자규』의 진정한 교육적 가치이자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심혈을 기울일 문제가 바로 자녀교육이라고 하겠다. 자녀들의 교육과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그렇다고 전통 동몽도서들이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물질만능의 현대사회에서 급격히 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방치 할 수만 없기 때문에 이 동몽교재를 통해서 다소나마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하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특히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는 『四字小學』과 『弟子

規』는 이같이 어린이들의 품행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항상 성현(聖賢)들의 가르침에 따라 전통적인 미덕을 계승하며 또한 유발되는 각종사회문제들을 지혜롭게 그 해답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 『史記·仲尼子弟列傳』
『論語·雍也』
『論語·爲政』
『老子·道德經』
『孟子·滕文公上』
『新絳縣誌』
『直隸絳州誌』
『山西歷史人物傳』
『論語·先進』
『孟子·滕文公章句下』
王芳, 『論‘弟子規’的德育思想對當代大學生的教育意義』, 高等教育研究, 魅力中國 2010年17期.
錢文忠, 『弟子規解讀』, 大塊文化出版公司, 2011年7月.
郭文斌, 『弟子規到底說什麼-打開弟子規的六把鎖』, 中華書局2011.07
鍾茂森, 『鍾博士講解弟子規』, 中國華僑出版社, 2012.04
索達吉堪布仁波切, 『弟子規另解』, 廣東省出版集團花城出版社, 2010年5月.
黃燦, 「弟子規研究」, 上海師範大學校, 석사논문, 2011년4월.
艾興, 「弟子規’對當代大學生道德教育應用研究」, 陝西科技大學, 석사논문, 2012년6월
楊軼, 「大學生思想政治教育視覺下“弟子規”的現代意義」, 南京航空航天大學, 석사논문, 2012년3월
冉晉, 「弟子規’禮儀教育思想的現代詮釋」, 湖南大學, 석사논문, 2013년5월
張波, 「小學德育視域下“弟子規”的價值研究」, 信陽師範學院, 석사논문, 2013
劉碧珠, 「從匯通匯利公司的實踐看“弟子規”在企業管理中的應用」, 中山大學, 석사논문, 2010.06.
姚峰, 「未成年犯罪原因調查及傳統道德教育實驗」, 安慶師範學院學報, 2011년12

월제30권제12기

- 石大建, 「“儒經”誦讀思潮在民間社會的興起及其動員機制」,上海大學,박사논문, 2010.
- 張慧玲, 「‘弟子規’對現代家庭教育的價值和意義」,山西師大學報第36卷第3期,2009年, 5月
- 衛世新, 「揭開‘弟子規’作者生平之謎」,山西日報,2010년6월4일 第C01版.
- 王維欣, 「‘弟子規’是黨員幹部道德修養的首選讀本」, 『經濟日報企業論壇』,2010年6月29日, 第C03版.
- 李辰·安平, 「北京豐臺法院審理家庭糾紛既講法理也講親情,‘弟子規’倫理警句寫入判決書」,人民法院報,2010年6月29日.第003版.
- 浩富, 「經常學習‘弟子規’和諧發展長智慧-菲尼克斯電氣中國公司弘揚中華傳統文化小記」, 『chiness time』 2010.08.
- 徐梓: 「蒙學讀物的歷史透視」 [M],武漢,湖北教育出版社,1996年.
- “海南監獄管理局原局長：受賄就是貪官在寫自己的判決書” 편 집祁勝勇.燕趙都市網 2011.08.20.
- http://www.wenming.cn/syjj/dfcz/201205/t20120529_680356.shtml
- <http://news.yzdsb.com.cn/system/2011/08/20/011382199.shtml>
- <http://www.hxzg.net/html/thkszjy/2012/0513/9017.html>
- <http://ygg713.blog.163.com/blog/static/5048327920139142143484>

Abstract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di zi gui』

Tong, li-sheng

『Di Zi Gui(弟子規)』 is written by Li,Yu-xiu(李毓秀) who is from JiangZhou, Shanxi, in Qing Dynasty during the reign of the Kanxi Emperor. The original name of the book is 『Xun Meng Wen(訓蒙文)』. The book is based on the ancient teaching of the Chinese philosopher Confucius saying “A good student is dutiful to the parents at home, and respects elders and superiors while away from home. He is cautious in doing things, trustworthy, loving all equally, and close to wise and virtuous people. In addition, he needs to further study of the literatures passed down from the ancient sages and learned scholars.” The text is mainly illustrates that a young man should be a good son at home and obedient young man abroad, sparing of speech but trustworthy in what he says, and should love the multitude at large but cultivate the friendship of his acquaintances. If he has any energy to spare from such action, let him devote it to making himself cultivated. This assists children to not only create a wholesome folklore but also nurture the family tradition. In Qing’s dynasty, the book 『Di Zi Gui(弟子規)』was a required reading text book for kids, to lead children in the right direction. 『Di Zi Gui(弟子規)』was acknowledged as the best textbook until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lso it was second only to “San Zi Jing” which explains the influence of this book was remarkable.

The author Li,Yu-xiu(李毓秀) Zi(字) is ZiQian(子潛), Hao is Cai San(采三). He is from province Shan Xi, Xinjiang Country LongXingZhen, Zhouzhuang village was born in 1674, Shun Zhi 4th year and died in 1729 at the age of 83, during Yongzheng Emperor 7th year. In the early Qing dynasty, he was a prominent educator and scholar. Li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with honors, and lived the life in pursuit of study. Later on, he combined the traditional demand of child education and his own experience in education field and compiled the book named “XunMengWen”. According to “Xinjinagxianzhi(新絳縣誌)” it is recorded as 『Di Zi

Gui(弟子規), originally named 『Xun Meng Wen(訓蒙文)』, and the author is Li,Yu-xiu(李毓秀), from XinJiang. Since then, with the help of modification from Cunren Jia, who is from Fu Shan(浮山), it is reformed and named 『Di Zi Gui(弟子規)』. According to many sources, after the change of name from 『Xun Meng Wen(訓蒙文)』 to 『Di Zi Gui(弟子規)』, it influenced the age significantly which continues today. Therefore, Jia Cun-ren(賈存仁) is recognized for his great contribution on the scripture 『Di Zi Gui(弟子規)』.

As previously mentioned, 『Di Zi Gui(弟子規)』 confirms the way of education in the statement which says “A good student is dutiful to the parents at home, and respects elders and superiors while away from home. He is cautious in doing things, trustworthy, loving all equally, and close to wise and virtuous people. In addition, he needs to further study of the literatures passed down from the ancient sages and learned scholars.” In other words, 『Di Zi Gui(弟子規)』 is the teaching of saints and it says that being dutiful to one’s parents at home, elders or children(Di Zi) is the first thing to practice, and next one is to measure one’s words and acts. Furthermore, one should keep faith with others. If one can manage this, one can nurture humane affection and can practice the six things mentioned above. If one has enough energy to spare after all these, and then one should take time in pursuit of studying. It is not saying that learning is not important but saying that learning and practice both are all important. However, if one does not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ories or contents, one tends to act in a incorrect way, whereas one can only focuses on studies but studies without practice serves nothing. Therefore, start with the basis of filial piety, one should coach one’s recognition and slowly merge it with the theories to unite the knowledge and the behavior. Also, the content of this children’s textbook instructs lessons that is should be learned by not only children but also adults that they should be obey, having significant educational value.

Key words : Di zi gui, Li,Yu-xiu, Xun Meng wen, confucianism, education

투 고 일 : 2014. 9. 10. / 심 사 일 : 2014. 9. 15.~ 2014. 10. 15. / 게재확정일 : 2014. 10. 27.